

희곡우체통 4차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작가님들도 이 더위에 글쓰기에 조금 지친 듯 희곡우체통에 기고되는 작품들이 조금 뜸해지고 있다. 그 더위 속에서 <봄눈>을 5번째 낭송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봄눈>은 제목이 주는 느낌처럼 따스함을 품은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 따스함은 혹독한 시련을 전제로 한다. 시급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재난 속의 사람들, 애타는 가족들 그리고 무능한 대응 등등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회적 사건을 환기한다. 사건의 전개 보다는 인물들이 쏟아내는 많은 말들에 의지하고 있는 이 작품은, 쏟아내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자 한다. 그 언어는 때로 거칠고, 또 때로는 자기 연민적이지만, 우리는 이 작품의 언어가 연극적 상황 속에서 '봄눈'처럼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봄눈>은 새벽 첫 버스를 타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우연'히도, 우리는 6411 새벽 첫 버스에 관한 감동적인 연설을 했던 한 정치인을 최근 잃었다. 세상의 전혀 다른 계기 속에 놓인 사건들이 이처럼 우연히 만날 때, 각각의 사건에 더 큰 울림을 준다. 그리고 이 우연한 만남의 '연극적' 상황 앞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하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봄눈>의 인물들처럼 무언가 아직 우리의 내부로부터 나오지 못한 많은 말들을 쏟아내기를 원한다.

이번에는 기고되는 작품들 중 각색 작품들이 몇 편 있었다. 각색 작품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작업이지만, 희곡우체통의 취지와는 맞지 않기에, 선정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극 작품들도 여러 편 기고되고 있다. 사극의 경우, 그 언어가 정형화되어 인물의 개별적 발현이 힘들기에 작가 자신의 언어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동시대성을 중시하는 희곡우체통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위가 조금 가신 후에는 희곡우체통을 열어 볼 때마다 가득 쌓인 작품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조만수